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모든 걸 한군데다 모아서 들이고 내라

귀신 방귀씨를 튀우려면

문 스님 말씀 중에 귀신 방귀씨 말씀이 나오는데, 귀신 방귀씨를 덜 먹이면 배고파 죽고 귀신 방귀씨를 더 먹이면 배 터져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귀신 방귀씨를 알맞게 잘 먹어서 키울 수 있나오.

답 마음 소름 기를 때는 방귀털을 먹여서 기른다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귀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빛깔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털은 빛깔도 없고 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털 자체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구요.

방귀라고 하는 거, 귀신 방귀털이라 그러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움쭉거리고 있는 거, 이게 어디 보이거나 합니까? 지금 속으로 설계를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놓은 것마저도 공했는데 어찌 그것이 그렇다고 말을 안 하겠습니까? 판치생모니 뭐니 하고 모두 말해 놓은 것이 전부 닷을 놓은 겁니다. 닷을 놓은 건데 그 닷에서 그걸 알아내고 빠져나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결국은 한 주먹이 전체의 주먹 안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말로 해서

일체를 알고 높은 게 없이 내 주인공으로 생각하라

도 되는 게 아니니 어찌 그걸 말로 하리까!

그래서 '대나무 방귀씨를 심어서 대나무 귀신 방귀털을 먹여서 키운다. 그런데 더 먹어도 안 되고 덜 먹어도 안 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나한테 타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필요도 없고 오는 거 마다할 필요도 없이 오고 가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이겁니다. 놓고 가라는 것이죠. '거기서만이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거니까, 모든 건 내놓한테서 나온 거니까 내놓이 다 알아서 할 게 아닌가! 내놓이 이끌어 줄 거고 내놓이 다 할 거고, 몸도 내 시자니까, 네 종이니까 내가 건강하게 해서 이끌고 다니려면 이끌고 다니고, 내가 죽 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월각 그냥 다 놔 버리는 거죠.

마음을 둘러서 굴러놓는 자체가 바로 무의 사무 사유, 이것이 팔입니다. 팔 수레공법이란 말입니다. 이 모두를 본다면 하나하나가 그냥 그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여러 분이 다 지어 놓은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냥그냥 살아있는 거 같지만, 그냥 이끌어서 매달려 가는 셈입니다. 살아가는 게.

그러니 우리 모두 마음을 잘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을 아주 풍요롭게 하고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려면 세계를 풍요롭게 할 줄 알아야 나라를 풍요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다가 또 수없이 인연 따라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짐승을 만나고 이렇듯 할 때 한생각에, 내 마음 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수없이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무명을 벗겨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기. 그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가 팔겨 놓는다면, 바로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즐지지 않고 아주 그 평등공법, 활공공법 이런 문제들이 그냥 수없이 자동적으로 솟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발전하는 것도,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 중력에 대해서 캐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랐

다 이겁니다. 발전하는 것도 인연의 상대방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모두가 차원대로 높은 것입니다. 차원대로 높은 것이다 하는 거는 알고 높고 없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데로 놓고 또는 공업 하는 사람은 공업 하는 사람대로 놓고, 상업 하는 사람은 상업 하는 대로 놓고. 왜? 이거 하는 사람을 저거 하래도 못하고 저거 하는 사람을 이거 하라고 해도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알고 높은 게 없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다 내 주인공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고, 가정에서나 나가서나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하러 들어왔더라도 남을 증오하지 말라! 모든 거를 내 주인공에다 맡기고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대로 칼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청년들 한 무리를 만났는데 도무지 돈 내놓으라고 하도 칼을 들고 야단을 하나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급하니가 '주인공! 모두가 둘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그냥 거기다 맡기고 급한 나머지 막 그냥 부르다가 보니까, 스님도 부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급



그림 · 최주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에이! 이놈 봐 봐 자 시간만 소비해!" 그러곤 가버립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력을 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창조력을 길러야 되고 창조를 해내야 되고... 우리가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덜 먹지도 말고 더 먹이지도 말고 알맞게 먹여서 중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세요.

마음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막히는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비를 베푸는 것도 마음을 일으킴이 아닌지요. 힘이 없이 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 그러한 것은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요. 잘할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답 먼저 우리 생활이 불교요, 불교가 생활이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 빼놓으면 생활이 없고, 생활을 빼놓으면 불교도 없습니다. 또

나라에 있는 지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지금 당장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할때로서 너무 힘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금방 "그렇습니까?" 하는 동안에 벌써 거기로 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한 점의 마음이 의사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보원도 될 수 있고, 문수도 될 수 있고, 관세음도 될 수 있고, 또는 지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용량도 될 수 있고 산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껏 자유자재할 것을 여러분이 참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 못할 때는, 여러분이 기계를 갖다 놓고도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못 쓰는 거죠.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계를, 기계라고 해서 안됐지만 사람이 무한의 자유권을 가졌다는 것을 아주 상실하고 색으로만 보고, 항상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아주 다양하게 쓸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배어 버렸단 얘깁니다. 누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관을 통해서 내 한 점의 마음속에, 자기발전소도 있거니와 원자력도 거기 있고, 여러분이 인방에 앉아서 테레비를 보면 세계를 바로 보는 듯이 다 봅니다. 그와 같이 거기에 천체망원경도 있는 것입니다. 또 천체무전기

망상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 없고 망상이 없다면 부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성도, 그렇게 모든 게 뒷받침이 되는 거니까,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한군데다 모아서 들이고 내라는 얘기입니다. 한군데에다 모으면, 이것은 원자 자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한번 마음을 내서 거기 놓으면 그냥 타 버리는 격입니다.

그러면 왜 법이 되느냐? 한 사람의 생각이, 일체 만생의 생각이 한꺼번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그것이 일체 법이 되는 거죠. 개별적인 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급하면 급한 대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때에 따라서, 급하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지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지금 당장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할때로서 너무 힘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금방 "그렇습니까?" 하는 동안에 벌써 거기로 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한 점의 마음이 의사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보원도 될 수 있고, 문수도 될 수 있고, 관세음도 될 수 있고, 또는 지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용량도 될 수 있고 산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껏 자유자재할 것을 여러분이 참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 못할 때는, 여러분이 기계를 갖다 놓고도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못 쓰는 거죠.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계를, 기계라고 해서 안됐지만 사람이 무한의 자유권을 가졌다는 것을 아주 상실하고 색으로만 보고, 항상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아주 다양하게 쓸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배어 버렸단 얘깁니다. 누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에 많은 군졸이 모자라게 됐고 각 중에 그런 일이 생기니 너무나 당황해서 그 신라의 인군은 상당히 초조한 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미추왕이라는 분은 그때 시집에 벌써 능에 들어가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 군이 모자라서 엘 쓰고 싸우러 나갔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고때 댓이파리 하나씩 뚫은 그런 군졸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그런 군병들이 한데 합세를 해서 그것을 밀어 제쳤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구신 온대간데가 없었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된다는 점을 말입니다. 온대간데가 없었으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시켜서 찾아봐도 도대체 흔적이 없어요. 그랬으니까 그 미추왕 능에 가 보니까 거기에 그 댓이파리가 수백하게 놓여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근거지를 찾았습시다. 그건 왜 그렇게 됐던가.

내가 항상 말을 하지요. 우리가 마음으로서의 차원이 높으면 살아서도 응수서도 말없이 그 문제를 분신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일체 만물만생과 둘이 아닐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참 살아서도 나라 걱정을 했거니와 죽어서도 나라 걱정을 하기에 이르르게 되고, 또 나라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그것만 안 것이 아니라,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그 오신통을 부리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의 한 점을 응용해서 모든 그 민간인들을 풀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그 한 점의 마음에서 바로 그분들을 응용해서 자신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분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분 그분이 됐다면은 얼마

30분으로 계속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문 일설에선 창조론이 옳다고들 주장하고, 자연과학 계층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가 틀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그것이 다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창조나 진화나를 가지고 온통 난리들인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지금 얘기로 하기 때문에 다르게 들리는 거지, 예전 얘기로 한다면 학술적, 그 경로를 볼 때 무슨 그... 수로가 다르잖아요.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내 부(父)가 있어야 내가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주 짧게는 눈 깜짝할 사이, 고된 사이에 붙어 있는 나의 부가, 즉 말하자면 불성이 바로 거기에 탁 결부되어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고 결부된 그거를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 결부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붙어 있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그저 손 하나 놀리는 거, 일거일동 자기 몸에서 움쭉거리고 보고 하는 거를,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각자 보는 겁니다. 자길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상세히 내가 범적인 무한의 그

설계할 때는 진화지만 집을 지으면 창조

우주적인 문제, 소용돌이로 내가 들어가서 배우려면 반드시 거기에 인도하는 길잡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안에서, 반드시 안에 길잡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길잡이를 좇아 들어가야 하고, 만약에 좇아 들어갈 때에 배가 고르면 그 예비는 자식에게 밥을 먹인다고요. 밥을 먹이고 과자도 사 먹여 거면서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고계 여간 편안한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예비가 배고프면 주고, 또 다리 아프면 쉬게 해주고 이러니 아주 편안한게 이렇게 좇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체험한 바를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말로 하지만 전자에 배운 사람들은, 그 학(學)이 많은 사람은 학(學)로다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 뒷면의 뜻을 알면 지금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이라는 게 따로 없고 창조론이라는 게 따로 없고 나뉠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입니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모여서 끝인을 해 가지고 또 거기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자라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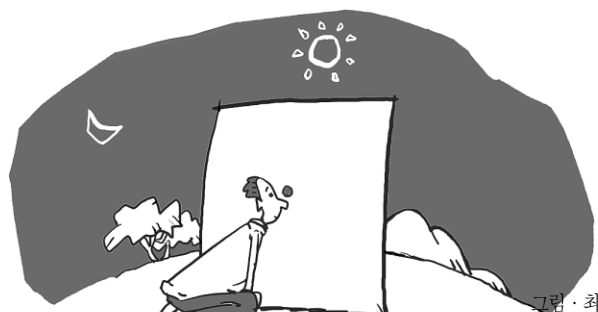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을 지금 가만히 상세히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없다면, 기어다니는 버러지가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나비가 돼서 날겠어요? 아니, 그것을 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력입니다. 진화력으로서 창조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창조력으로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나뉠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태어나서 나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무(無)에도 나투고 생시에 이 몸도 나투고 있던 말입니다. 현재 나투고 있는 걸 보면 벌써 무에서도 나투고 있는 걸 알아야죠. 이것이 참, 못 믿는다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 해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어떻

게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죽으로 설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게 창조예요. 설계를 할 때는 진화지만 집을 지어 놔줄 때는 창조다 이겁니다.

근데 창조만 했으면,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나가 다 살 수 있는 집이 된다 이거예요. 고정적인 한 사람만 고 집에서 산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고대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 변화돼서 사그러지고 헐어지고 써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나뉠이다 이겁니다. 전부.

그러니 이것이 우리말로 요렇게 해 놓으니까 쉽죠. 그런데 그것을 이것 따로 보고 저것 따로 보고 이렇게 논의들을 자주 하는데, 길게 자주 펼쳐 놓지 말고 자주 축소해서 이렇게 봐야 이겁니다. 축소해서 보면 자기가 그대로 움쭉거리 는 것도, 움쭉거리게 하는 것도 다 나뉠이다 이겁니다. 벌써 이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나기 이전, 벌써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낳다 이겁니다. 낳기 때문에 나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부쳐 아니냐 이겁니다. 어쨌든 그대로 부처를 잘 못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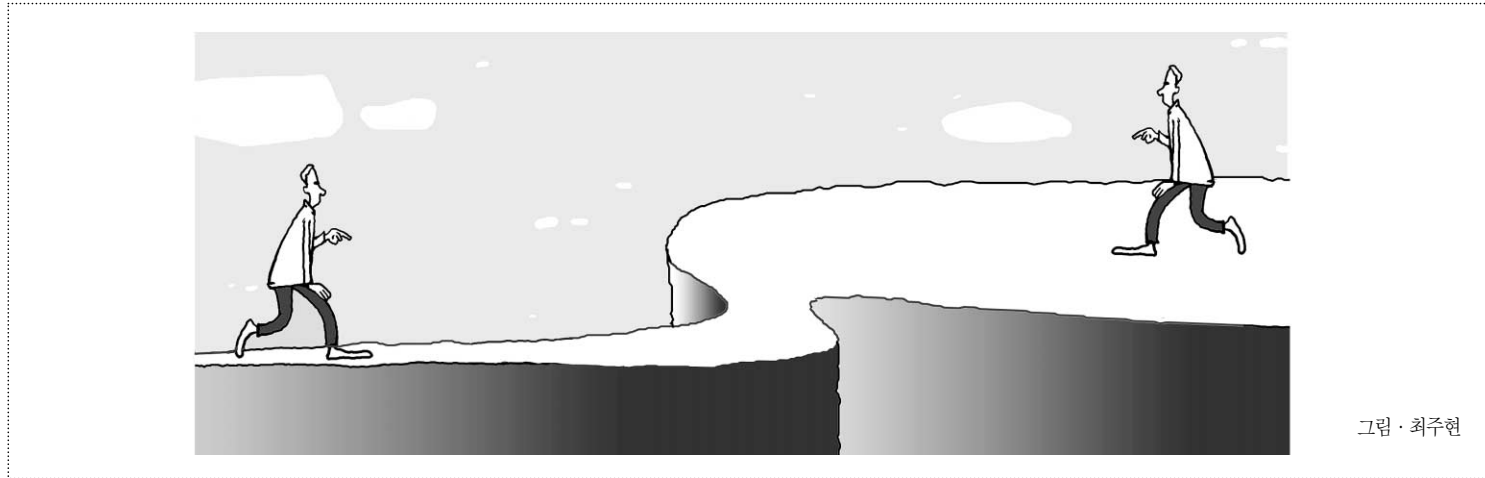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법은 자기 마음을 부처로 만들어

29면에서 계속

나 유력했겠습니까. 아주 급한 시기에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미추왕 같은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다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지마는 한생각을 냈다 하면 이걸 법신입니다. 몸을 한 번 움직여줬다. 한 번 앉았다가 한 번 딱 움직여줬다 하면 벌써 이것은 화신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데에 바로 그 문수 보현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지금 과학적인 문제도 거론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근대 알고 보면 옛날보다도 아주 더 편리하게 되 있지요. 그래서 한 점의 그 마음이 보배라면, 지혜만 거기 풍부하게 있다면 하는 소리는, 여러분이 일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으면 어른으로 성장하게끔 키우기 위해서 오래도록 애를 씁니다. 딸만 대사는 면벽을 6년 동안이나 했고, 또 육조 선사는 십 몇 년을 보림을 했듯이, 애를 낳았다고 해서 어른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행세, 사람 행세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리를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한 점의 모든 것을 들고 낸다는 것을 알리고 하는 겁니다. 들고 내는 데서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이 또 그렇지 뭐 안 그렇니까. 여러분이 이날까지 마음으로 들고 내면서 살아왔지 뭐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해 나왔습니까? 바른 대로 얘기고. 그러면 일체 방법이 어디서 들고 내고 살림들을 하십니까. 한군데서 바로 살림들을 하시죠. 거기다 지혜만 건다면, 바깥에서 찾지 않고 바로 안으로 찾는다 면,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그 점입니다. 그 한 점에서 나오는 한생각으로 급하면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지는데.' 한다든가, '우리 국민이 위태로워져.' 이런

다든가 또는 '아, 우리 가정이 위태로워지면 내가 위태로워지고, 또 내 몸이 위태해.'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항상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하다는 얘깁니다.

이 마음 성품은 바로 그 한 점의 원력으로, 누구나 나가 영원한 생명의 그 원점은 똑같지만 태양의 근본도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한 점의 근본이니까, 또는 천지의 근본도 한 점의 근본이요, 우주의 근본도 전체가 한 점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그걸로 하여금 환경에 따라서 가정이나 몸이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도 영향이 될 수 있게끔 자꾸 넓히면서 우리는 자꾸 실험을 해 봐 가면서 체험을 하면서 믿고 물러서지 않고 한군데서만 이 들고 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왜? 우리의 대문도 하나지 들어 아닙니다. 뒷문이 있고 앞문이 있다 할지라도 대문은 하나지 들어 아니에요. 그 대문을 통해서 온 정안에, 장안이라 하면 전체를 말합니다. 그 대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들고 나지요.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들어갔다. 대문 하나지 들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면서도 우주의 전체가 바로 그 대문, 대문 없는 대문에 한 점이 있다는 걸 영 모릅니다. 자기 주장자에, 그 주장자가 바로 뒷장이라는 걸 모릅시다. 어디고 통과가 된다는 거를 모릅니다. 어디고 통과가 되고 어디든 급하면 급한 대로 해결할 수 있고, 또는 그대로 맡겨 놓으면 맡겨 놓는 대로, 모르면 맡겨 놓는 대로 거기에서 벌써 무무해서 현재 자기의 그 차원에서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건강 참 편리하게 사는 쪽이죠. 그러기에 사람이 살 만하다는 겁니다.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족하지 뭐 더 바라겠습니까.

금강경의 오안에 대해서...

저는 현대불교의 '길을 묻는 이에게'란을 통해 스님의 설법을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보면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 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 경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그러한 경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오신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심통 천안통 원이통 신족통 속명통 이렇게 말합니다. 근대 그것이 모두 누진에 딸린 수하예요. 누진에 딸린 수하.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룡에서 벗어나야, 내 모습 통해서 벗어나야, 누진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누진이라는 건 뭐냐. 바로 지금 현재에 컴퓨터 같은 거예요. 입력되는 컴퓨터. 그래서 여러분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입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력되는 것이 온 우주의 전체에 다 퍼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다음 파를 통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는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전체가 알게 된다 이 소리지. 이게 무슨 말 같지만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현실이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이 모두 여러분은 모르시고 올라가야 되죠. 모르시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알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알게 되고,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알게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내 마음을 주인공 하나가 거저씨라면 일체제불을 다. 일체제불도 각 처 각 급에 부처님 상이죠.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런 걸 다 이 가족 속에 다 넣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 쫓아다니면서 모시고 쫓아다니면서 받들고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일체 중

생들도 다 넣고, 들어 아닌 깨달이예요. 우리가 몸 땅, 이 세상에 모두 일체를 다 넣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한 주먹 쥐어다가 넣어도 썩 사이도 없고 넣을 사이도 없다. 그러면서도 넣어줬다. 또 꺼내서 내 풀어 줘도 내 풀어준 사이가 없이 풀어 줬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며 보살의 법도입니다. 공법 도리.

여러분이 그렇질 않아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부모님이 잘못 돌아가셨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좋게 맞아 죽었다거나 6·25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 물에 빠져 죽었다든가 목을 매서 죽었다든가 이런 분들도 그냥 아무런 어렵게 살고 아무런 약하게 살고 잘못하고 살고 그대로 이것이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모든 거를 넣으면 그냥 바래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주 하기 쉬운 것도 하기 쉽지 않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애를 써요. 근대 그렇게 안된다는 거죠. 진짜 자기를 믿는다면 왜 안되겠습니까? 자기 모습은 물질적인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인데, 불성인데 어째서 그걸 믿지 않고 믿을 생각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겠다는 거를 알고 그렇게 믿으니까 믿지 않아서요? 아무런 믿는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죠. 그게, 언제나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글로 한데 합쳐져야 경건인 거예요. 통신이 된 거구요. 이게 겹쳐지지 않는다면 통신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게 벌어져서 일을 한데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책만 보고 열뿐만 배우는 게 공부야 아니고 경전만 보는 게 열불이 아니고, 항상 자기 생각이 투철해야 되죠.

그래서 잘 믿고 잘 하는 사람은 심안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배워서 정팔이 믿는다는 소리 없이 믿는 사람들은 법안으로 믿게 되고, 또 그 보다는 더 한 소리 없이, 내가 있다 없다 소리도 없고 남들이 있다 없다 소리도 없고 세상이 있다 없다 소리도 없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은 불안으로 해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문 없는 대문에 한 점이 있다!

제6기 참나찾기 선 심리치료 명상호흡지도사 모집

◆ 선 심리치료 명상호흡아카데미 개설의 목적은?
현대인은 물질과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참나를 찾고 온을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도덕 불감증과 각종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정리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정을 높일 수 있는 참선과 명상호흡, 정신분석, 선 심리학, 자연대체 의학을 활용한 정신심리치유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참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최상의 정신심리 치유의 정을 열려 있는 불교적 도덕을 담아서 '선 심리치료명상호흡아카데미' 를 개설한다.

◆ 교과일정

과정	요일	시간	기간
양성	목요일	저녁 7시 ~ 9시	4월 8일 ~ 6월 24일(3개월)
특수		수시모집(15명 선학수, 9박 4일, 수련원)	

◆ 특 전

- ①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기인 자격
- ② 선 심리치료상담 전회원 '마음의 전화' 개설서 자료 제공
- ③ 참나 찾기 필단체 큰 모임(선 심리명상수련회)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상담명상수련 프로그램 18회 개최)

◆ 수강료
20만원(3개월분, 교재비 등 포함, 단, 통신판 3만원 추가됨)
우리은행 달마선원 019-258104-12-501
하나은행 달마선원 379-810048-78107

◆ 문의 및 수강신청
2004년 3월 20일 ~ 4월 1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단, 특수과정은 개별방문상담 요망)
TEL : 02)738-1275(심리치료), 02)312-8248 / 9(F)
H.P : 016-301-4080
* 수강신청과 관계없이 선 심리치료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예약 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사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명상호흡아카데미

영험도량

픽미승

불보살님 가피려 받는 사람

참회하는 마음 > 갖는 사람
용서하는 마음 > 갖는 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대로 기쁨을 받는 시제 ◀

나에 경향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주택, 그러를,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원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신중합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파자명리학비결" 소개

사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교재와 선생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면, 여러분도 빠른 시일내에 사주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는 사주학의 근본원리에서부터 고급 추명비결에 이르기까지 사주학의 핵심이론들을 확실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애매한 사주의 운신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비결수록
- 사주구조의 좋고 나쁨을 판별할 수 있는 비결수록
- 대, 세운을 원국에 대입해석하는 방법
- 기존의 사주학이 간과하고 있는 대안이 중요한 각 주간의 작용력 관계를 살필 수 있는(일단 진인론) 공개
- 형충회합 및 공망을 확실하게 응용할 수 있는 비결수록
- 외려고 내격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
- 그의 새로운 연구 개발된 12지지 관계론 및 60갑자간의 특수관계론 공개

■ 저 자: 오산 정 대균(하건충 원저)
■ 책규격: A4용지 620쪽 / 가격: 220,000만원
■ 본서는 본 연구소 및 "교보문고"에서 판매함
■ 하기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우송
■ 계좌번호: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정 대균
■ 수강생도 수시 모집함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TEL : 02-831-0055(대표) / FAX : 02-831-0058

법안명상기공강좌

법안명상기공을 수련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진화됩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5시30분
- 초급·중급·상급·고급 각 3개월 과정
- 명상·사범과정 각 1년
- 지도: 보덕현호선사
- 수강료: 3만원(월1만원)
- 개 강: 4월 7일(水) 오후 4시
- 접 수: 마포문화원 문화학교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0-2
- 전 화: 02)312-1100
- 위 치: 아현고가도로 마포쪽 아현중학 앞 지하보도 내

법안명상기공회